



겨울 기린을 보러 갔어

독 후 활동지

이름
학교 | 학년
지도교사

특별한서재



‘엄마에게 남자 친구가 생긴 것 같아.’

한송이꽃집의 송이는 몰래 본 엄마의 휴대폰에서
‘북극곰’과 나눈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한다.

보고 싶어요. 뭐 해요?

그만 자. 안녕.

‘북극곰’에게 엄마를 빼앗기는 게 싫은 송이와
홀로 송이를 키우며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엄마.
서로 다른 입장에 두 사람 사이의 오해는 쌓여만 가는데…….



송이는 이혼한 아빠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기만 하다가 끝내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게 됩니다.
나는 가족 또는 친구 등 가까운 사람과 다툰 경험이 있나요? 그때, 나는 어떤 식으로 갈등을 해결했는지 떠올려 보세요.

누군가와 싸웠던 경험

어떻게 화해했나요? 이를 통해 배운 것이 있나요?

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'겨울 기린'은 무엇을 상징할까요? 내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.

▷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꺼내지 못한 말이 있나요? 미안함, 고마움 등 어떤 감정이어도 괜찮습니다. 진심을 털어놓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, 솔직하게 적어 보세요. 내가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할지도 상상해 봅시다.

